

(畫面)

화면 속의 바다

- 무분별한 해안개발에 대한 아쉬움



남 애 리 | 방송작가 · 한국방송작가협회 상임이사

바다를 배경으로 하는 수많은 드라마와 영화는 일단 시각적으로 그야말로 '그림'이 된다.

해안선을 따라 늘어선 노송, 옹기종기 모여 앉은 낮은 돌담사이로 보이는 어촌의 지붕들..... 시원한 바닷물 색과 어우러진 하늘은 흐리면 흐린 대로 맑으면 맑은 대로 아름답다. 수평선의 일출과 일몰 역시 한 폭의 그림이다. 그래서일까? 이미 수많은 시인과 문학가들이 문자를 통해 바다를 노래해왔고, 필름이란 문명의 이기가 생기자마자 바다는 사람들의 희로애락을 대신 표현할 가장 좋은 배경화면으로 등장했다

더운 여름 바닷물에 푹푹 뒹꾸어드는 사람들을 보면서 시원한 바닷물 속에 뛰어드는 듯한 대리만족을 느끼기도 하고, 밀려왔다가 밀려가는 파도를 보며 세월의 무상함을 느끼기도 하고, 바닷가에 혼자 앉은 이의 뒷모습을 보면서 쓸쓸함을 느끼기도 한다. 바다를 향해 달려가는 기차나 자동차 안에서 들뜬 분위기는 젊음의 낭만을 보여주기도 하고, 해변에 둘러앉은 젊은이들의 모습은 지나간 시절 속에 남은 청춘이란 한 페이지를 불러오게 한다.

바다는 흔히 연인들의 모습과 함께 등장한다. 사랑하다 헤어진 연인을 그리며 밀려왔다 멀어지는 파도를 보며 모래밭에 하염없이 앉은 쓸쓸한 실루엣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대부분 연인과 함께 하는 기쁨의 바다로 등장한다. 환희에 찬 바다는 대개 온결 햇살이 눈부시고 파도는 조용히 왔다 사라지며, 바다를 배경으로 해변을 걷는 연인의 표정마저 눈부시다. 연인들은 거기서 만족하지 않는다. 무슨 이유인지 해변을 조용히 손잡고 걷기보다는 모래 위에서 달리기를 좋아한다. 잠시 후엔 걸려 넘어질 돌부리가 있을 것 같지도 않은데 주로 여자 쪽이 먼저 모래밭에 넘어지고

그 위에 다시 남자도 쓰러지고..... 오래 전 영화에서부터 보아왔던 이 장면은 지금도 빈번히 등장한다. 화면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어유 유치해' 하면서도 익숙한 풍경을 아무 저항 없이 받아들인다.

그런데... 앞으로 이런 장면은 아주 보기 드문 장면이 될 지도 모른다. 바다 주변의 무분별한 개발과 모래 채취, 그리고 지구 온난화로 해수면이 높아지면서 해변의 모래밭은 면적이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부산 해운대, 속초, 강릉 등 전국의 이름난 해수욕장에 본격적인 피서철이 오기 전에 모래를 몇 트럭이고 쏟아 부어야 할 형편이었다는 얘기는 이미 몇 년 전부터 들었으니 흔하디 흔한 이 장면 한 컷을 찍기 위해선 몇 트럭 분의 모래를 해안선 따라 부어넣어야 하는 엄청난 비용이 들 것이 자명하다. 인위적인 훼손은 두말할 것도 없으며 때때로 일어나는 자연 재해 조차도 많은 부분 우리 스스로 자초한 일이고 그에 따른 피해 역시 부메랑처럼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은 당연한 귀결인 것이다.

재작년 겨울, 일본에서 아는 분들이 '겨울연가' 촬영지가 보고 싶다며 한국을 찾았다. 이분들의 희망지를 따라서 남이섬, 춘천, 용평을 거쳐 동해안의 추암 해수욕장을 갔다. 해수욕장 한쪽에 소나무숲이 우거진 기암절벽이 아름다웠다. 그 바위섬 사이로 뜨는 일출 모습이 우리나라 애국가가 흐를 때 배경으로 나오는 한 장면이라는 얘기도 처음 들었다. 정해진 산책길을 따라 바위섬을 한바퀴 돌았더니 바닷가에 작은 집 한 채가 나타났다. 드라마 속에 등장한 그 집을 배경으로 열심히 카메라 셔터를 눌러대는 일본인들 - 그 날 추암해수욕장은 우리 일행 외에도 일본인 관광객을 태운 관광버스 몇 대가 먼저 와 있었다. - 을 보면

서 지금의 화면 속에 남겨진 풍경 그대로의 추암 해수욕장이 앞으로 몇 년이나 더 남아있을지 미리 걱정이 됐다. 이미 더 이상 옛 모습을 찾을 길 없는 사라진 화면이 돼 버린 '모래시계'의 촬영지인 정동진 바다, '가을동화' 촬영지인 화진포가 그렇듯 드라마 촬영지로 알려져 사람의 발길이 잦아지면서 변해버린 바다 풍경을 수없이 보았기 때문이다.

화면 속에 보이는 바다에 매료된 관광객들은 화면 속의 아름다운 풍경 그대로를 머릿속에 그리며 찾아간다. 그들은 그 앞에 서서 자신의 증명사진을 카메라에 담으며 자신이 드라마 속의 주인공이 된 듯한 대리만족을 얻기도 하는 것이다. 그러나 촬영지로 소문난 바다는 다시 찾을 때면 어김없이 쓸쓸한 배반의 바다로 변해버린다. 해안을 따라 즐비하게 들어선 모텔이며 음식점들이 해안풍경을 가로막고 갖가지 네온사인에서 뿜어져 나오는 불빛은 더 이상 소박한 어촌 풍경이 아닌, 짙은 화장을 한 여인네의 얼굴처럼 요란스런 바닷가 풍경으로 변해버리는 것이다.

좁은 국토의 모든 강산이 변해 가는데 유독 경치 좋은 어촌만 옛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라는 주문 역시 어촌의 힘겨운 삶을 모르는 도시민의 이기적인 발상일 수도 있을 것이다.

한 광고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나라 사람들은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속도가 빠르다. 그래서인지 옛 것을 살리면서 좀 더 나은 쪽으로 유지 보수를 하려들기 보다는 일단은 갈아엎고 새로운 것으로 대체 하려는 성급함이 사회 곳곳에서 나타난다. 일본의 경우 오래되고 낡은 집을 고치는데 드는 비용이 집을 새로 짓는 비용보다 더 클 경우에도 일단은 고쳐서 쓸 수만 있다면 기꺼이 고치는 쪽을 택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백년도 더 된 낡은 목조 건물도 내부만 살기 편하게 고쳐서 반짝반짝 윤이 나게 해놓고 사는 사람들도 많다. 그 사람들은 자신의 집이 백년도 더 된 오래된 건물이며 자기는 몇 대째 이 집에서 살고 있다는 얘기를 자랑스레 한다. 새로운 하나를 만드는 것 보다 오래된 것을 그대로 남기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를 잘 알기 때문이다.

힘겨운 삶의 흔적이 묻어나는 피적직한 모습을 부끄러워하거나, 오래 남겨둘 만한 귀중한 무엇이 없어서라는 변명

은 말자. 화면 속에 한번 비친 집이면 알록달록한 색으로 지붕부터 바뀌놓는 것은 과연 저 집이 드라마 속에 나온 그 집이 맞는지 고개를 갸웃거리게 만드는 '생똥 맞은' 걸치장에 불과할 뿐이다. 낡고 초라하지만 삶의 흔적이 그대로 배어 나오는 것들에서는 한번 없어진 뒤에는 다시 찾을 수 없는 귀한 역사의 궤적이 남아있다. 그 속에서 살아온 이들의 지난한 인생살이가 그대로 녹아서 살아온 시간만큼 숨쉬고 있는 것이다. 가난이 그의 과거였다면 아프고 시린 지난 날 조차 따듯이 보듬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어촌 주민들은 우리 어촌의 아름다운 풍경을 그대로 지키려는 노력과 어촌 사람으로서의 자부심이 먼저 자리 잡아야 할 것이다. 사람들이 찾는 화면 속의 바다는 화려한 걸치장의 바다 풍경이 아니라, 바다를 밀친으로 열심히 땀흘리며 살아온 이들의 생활 공간으로서의 바다가 보고 싶은 것이다. 어촌이든 농촌이든 좁은 국토 어디에서든 볼 수 있는 펜션, 모텔, 음식점 간판으로 넘쳐나는 바다는 더 이상 화면에서 보고 그리던, 찾고 싶은 바닷가가 될 수 없을 것이다. 그 바다를 배경으로 살아온 어촌 주민들이 먼저 자신들의 바다 모습을 지키고자 하는 노력을 강구해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이다.

국토 어디든 경관 좋은 곳의 땅들이 대개 지역 주민과는 상관없는 외지 사람들 소유로 넘어가, 그들에게선 애초에 애항심을 기대할 수 없을뿐더러 아름다운 경관 지키기보다는 상업적인 가치가 우선 될 것은 자명한 일이지만 이 또한 어촌 주민들이 힘을 모아 막아내야 할 과제 중 하나일 것이다.

소박하지만 좀더 구체적인 제안을 하자면 해변 몇 미터 이내에는 상업적인 시설이 못 들어서게 한다든지, 바다 경관이 해안 쪽에 땅 가진 몇 사람만의 전유물이 되지 않게 해변에 짓는 건물의 높이를 제한하고, 적어도 화면 속에 등장한 집이나 그 안에 있던 볼품 없는 의자 하나라도 새로운 것보다는 낡아도 옛 모습을 남기려는 노력 등이 화면 속의 바다를 찾는 이들의 발길을 끊이지 않게 하는 최소한의 배려일 것이다. 물론 아직 화면 속에 등장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아름다운 화면으로 등장할 수많은 어촌의 경우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